■ 정치권 '공정 사회' 후폭풍 촉각

"특혜 배제…법과 원칙 엄격 적용" 환영

여 "소급적용 국정 부담…공정한 기준 제시를"

야 "정부·여당 사정정국 조성될까 심히 우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라는 화두의 후폭풍이 여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일부 각료 후보자들의 낙마와 자녀 특혜채용 물의를 빚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사퇴가 이 같은 기준의 연장으로 해석되면서 '공정 사회'는 여의도의 키워드로 급부상했다. 여야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특혜를 배제하고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고 해석하며 일단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이재오 신임 특임장관은 6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가 되려면 정치권, 공직사회, 기업이 투명해야 하는데 정치권과 공직사회가 먼저 청렴하고 투명해야 하고 솔선수범해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뜻"이라며 "앞으로 그 기준이 더 엄격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 일각에서는 이 메시지가 과거의 행위까지 소급 적용되며 오히려 국정 운영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공정에 대한 기준이 시급하다는 건의가 나오고 있다.

야권에서는 정부·여당의 솔선수범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함께 갑작스럽게 사정(司正) 정국이 조성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류도 나타나고 있다. 또 여권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타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최근 "대학 입시제도는 출발의 공정성에 관련돼 있는 만큼 점검이 필요하다"고, 정두언 최고위원은 "공정한 교육기회 차원에서 입학사정관제 확대 실시는 재검토돼야 한다"고 각각 밝혔다.

◇사정(司正) 태풍 전조인가=집권 후반기 공직기강을 다잡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사회'가 활용되며 결국 사정 한파가 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특히 야당에서는 '표적사정'에 대한 경계감이 감지되고 있다.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 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연일 공정한 사회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청와대와 이 정부, 권력이 공정하지 못한 것에 문제의 초점이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여당부터 공정한 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할 때 국민이 수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사정의 칼날도 야당으로만 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 진영의 한 의원은 "자칫 잘못하면 사정정국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고, 특정인에 대한 탄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망했다.

◇부메랑 될까=여야 모두 공정사회 메시지가 자칫 부메랑으로 돌아올까봐 '집안 단속'에 부심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전날 공정사회에 대해 "분명 시의적으로 적절하나 오히려 현 정부의 굴레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다"며 야당의 대여(對與) 공격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민주당도 지난주 강성종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협조한 데 이어 "내부에 문제가 생기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국무위원 후보·내정자에게 들이댄 엄격한 잣대가 자신들에게 되돌아올 수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유명환 딸' 노골적 특혜 확인

행안부 "응시 사실 알고 관계 법령 위반"

외교통상부가 특채 공모에 지원한 유명환 장관 딸이 합격할 수 있도록 노골적인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특별인사 감사 결과 발표를 통해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이 특채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장관 딸을 합격시키려고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다섯 명의 면접위원 중 외부 위원 세 명은 유 장관 딸이 아닌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면접에 참여한 한충희 인사기획관 등 외교부 간부들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면접 위원을 구성에서도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통 면접관 등 시험위원은 신규 인원을 필요로 하는 기관장이 결정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 때는 한 기획관이 내부 결재 등 절차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시험위원을 정했다.

또 한 기획관은 유 장관 딸이 시험에 응시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험위원을 선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서류전형과 면접 등에 참여한 것이다.

시험 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우선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에 따르면 응시자격 범위는 가급적 확대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는 종전과 달리 자격 범위를 축소했으며 어학 요건도 유 장관의 딸에 유리하게 적용했다.

또한, 통상(通商) 관련 법적 분쟁 등을 다루는 FTA(자유무역협정) 담당자를 선발하는데 업무 연관성이 높은 변호사는 배제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일관되지 못한 측면도 드러났다. 행안부는 유 장관 딸에게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이 유명환 외교통상부장관의 딸 특별채용 논란으로 불거진 특채제도와 관련,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행안부 기자실에서 개선방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나라 "특채 비율 줄이겠다"

행시 개편안 재검토

한나라당은 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고시 개편안을 재검토한다는 원칙 아래 향후 당정협의에서 특별채용 비율 감축 등 구체적인 조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 특별채용 논란으로 행정고시 개편안이 쟁점현안으로 부각되자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 비공개 회의에서 행시개편안 보완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별채용 제도가 특수계층 자녀의 취업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만큼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특히 행시개편안 중 외부전문가를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정원의 최대 50%까지 선발하는 '5급 전문가 채용시험'에 대해선 비율을 30-40%로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안상수 대표는 이날 "고시와 특채 비율의 급격한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지금 고시와 특채비율을 50%대 50%로 한다고 하는데 그 비율을 70%대 30%나 60%대 40%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북구 풍향동·두암 3동 구간 경계조정이 급한 이유?

인구 감소 동구엔 절대적 필요

사업·정책 추진 재원 마련길도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동구의 최대 현안은 북구의 풍향동과 두암 3동을 끌어들이는 일이다. 북구와의 경계조정을 통해 이들 2개 동을 편입해야만 국회의원을 뽑을 수 있는 10만4000명(2008년 기준)을 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히 국회의원이 없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사업·정책을 실시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자체 재원의 감소 및 외부 의존도 심화, 인구 유출 등의 문제점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 동구는 이미 자체 수입(지방세+세외 수입)으로는 직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구간 경계 조정'만이 살길=동구의 인구는 매년 3000~5000명이 빠져나가고 있다. 노후 단독주택지에 대해 꾸준히 재개발하고 있으나 원주민 유출은 계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설 불경기, 미분양 등으로 아예 재개발 수요도 없는 실정이다.

또 도시정책이 20~30년 전부터 신도심 개발에만 치중되고 구도심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도로나 공원 등 기반시설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이는 당연히 구도심의 인구 유출로 이어졌다. 지난달 말 현재 동구의 인구는 10만1613명. 자치구 간 경계조정 문제가 최초 불거진 지난 2006년과 비교해도 1만4000여 명이 사라졌다.

이 같은 위기에서 동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이미 4~5년 전 무산된 바 있는 북구의 일부 동을 가져오는, '자치구 간 경계조정'밖에 없었다. 동구가 편입 대상으로 삼은 풍향동과 두암 3동의 현재 인구는 각각 8401명, 2만1453명으로 모두 2만9864명이다. 이에 반해 북구의 인구는 지난달 말 46만7782명으로 전체 광주시 인구(144만2029명)의 32.44%를 차지하는 거대 자치구이기 때문에 북구에서 인구를 떼어오는 방안이 다시 부각된 것이다.

◇과거 경계조정 논의 왜 무산됐나=동구는 인구 11만명 선이 위태로웠던 지난 2006년 말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을 처음 제기했다. 당시 동구는 광주시의 구간 경계가 지난 95년 광산구의 서창출장소와 대촌출장소가 각각 서구와 남구로 편입·조정된 이후 10년 이상 됐으며,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신도심 개발로 인해 인구가 감소했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자치구 간 인구편차는 주민 복지 및 행정서비스의 격차를 불러 광주시의 균형 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실제로 북구의 경우 주민 1명에게 지출되는 구 예산이 47만원에 불과하지만 동구는 101만원으로 2배를 넘고 있는 시점이기도 했다.

동구는 직원들을 동원해 편입 대상으로 거론된 풍향동과 두암3동 주민들에게 일일이 설득작업에 들어가고 광주시도 이에 긍정적이었으나 결국 무산됐다. 2007년 손재홍 의원의 발의로 자치구간 경계 조정을 논의할 수 있는 틀인 '광주시 지역균형발전 조례'까지 제정됐지만 정치권의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넘어서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박광태 전 시장은 "표를 계산하는 사람들 때문에 구 간 경계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언할 만큼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은 서로 자신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계산했다.

◇주민 동의 후 정치권 합의 절실=강운태 광주시장이 6일 민선 5기 첫 동구 순방에서 '자치구 간 경계 조정'방침을 밝혀 4년 만에 다시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하지만 동구의 인구 및 면적 증가를 위해서는 우선 4년 전에 실패했던 경계 조정 대상이 되는 동 주민들의 동의, 지역 국회의원 및 지역의원 등 정치권의 합의, 자치구 간 마찰 최소화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각 자치구나 정치권은 광주의 균형발전을 위해 구간경계조정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으로 들어갈 경우 각 자치구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정치권이나 자치구에서는 구간 경계조정에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주민들은 무관심한 상황"이라며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이 대국적인 관점에서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바이블칼리지 신(편)입생 추가 모집

GWANGJU BIBLE COLLEGE &THEOLOGICAL SEMINARY

Th. M.(신학석사) 과정 개설

• 1년에 최단기 학위과정 완성 3개월 단위 한 학기에 8학점(전공필수 4학점, 전공선택 4학점) 이수하면 3학기에 졸업이수학점을 마치고 3개월간 논문완성해서 12개월에 학위 완성함.
• 최고의 교수진 선교, 치유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 학비 저렴 타 대학 학비의 1/2 내지 1/3
• 진로 보장 ① 이 과정에 입학자는 100% T/A(교육조교) 자격증을 수여하고 최대 6회까지 지도교수의 전공강의 1/2을 현장강의 함.
② 우수졸업생 해외 Ph. D. 과정유학을 보장하고 졸업생 전원 학부강의를 맡을 수 있는 기회부여.
③ 타 대학 출강 적극 추천
④ 수업시간:2주1회(학생편에서 시간이 있을 때 수업시간 자유)
• 모집 안내 10명까지 인원 제한. 지원 분야 (선교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조직신학, 실천신학, 역사신학)
• 입학 문의 학장 직접상담 ☎ 010-7413-1215, 061) 381-0000,1365

교수진

NO	교수명	과목	경력 및 현직
1	이환수 (이사장)	철학	미국 일리노이대학졸업, 5.18북미주대표, TX한인회장&상공회의소 회장, 한미인권연구소장, 광주바이블칼리지 이사장, 세린사회교육원 대표
2	최정만 학장	신약/선교학	서울대졸업, 미국Fuller대(석,박사), 이화여대, 총신대, 숭실대, 고신대강사, 광신대교수역임, 한국복음주의선교학회장, 한국신학자 최우수학술대상수상
3	채영애	실천신학	미국미시건대학교(학사), 영국브리스톨대학교(석사), 미국존합킨스대학교(석사), 미국콜럼비아대학교(Ph.D), 미국쥴리안센타(연구원), 미국풀러신학대학원(연구원),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교수), JDI대표
4	윤영혁	조직/신학	총신대학교(M.Div.), 미SouthWestern대학교(Th.M), Regent대학교 조직신학(Th.D)
5	김명호	구약학	전남대학교졸,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M.Div.), 전남대학교강사, 이스라엘히브리대학교 고대근동어(Ph.D), 광신대학교구약학교수역임,
6	전원호	신약학	고신대학교, 고려신학대학원(M.Div), 화란깜편신학대학(박사과정), 독일브레멘한인교회 담임, 벨기에브뤼셀한인교회, (현)광주은광교회 담임
7	조태익(교목실장)	구약학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M.Div.), (현) 담양읍교회 담임
8	임 영	선교/영어	조선대학교 (영문학 학사, 석사, 박사) 선교총회(M.Div), 조선대, 동신대, 호신대 출강. 광주여자대학교 겸임교수, 세린사회교육원부설 국제어학원장
9	고경태	조직신학	총신대신대원(M.Div.)총신대학교(조직신학 Ph.D)취득, (현)주님의교회 담임
10	신동구	실천신학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Th.M)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Th.M), 예루살렘성서대학(Th.D), 백석대학교(Th.D), (현)주님의교회 담임
11	김봉진	윤리학	호남신학대학교, 장로회신대원(M. Div.), 호남신대(Th.M), 장신대대학원(Th.D)(현)담양개동교회 담임
12	손순용 (교수회서기)	사회복지학	전남대학공과대학, 경영대학원(인사관리) 동신대학교사회복지학박사, 전남도립대학교수
13	정현필(연구처장)	창조과학	한국항공대학교항공공학박사, 조선이공대학교수, 창조과학회이사
14	강대영	실천신학	전남대학교졸, 개신대학원대학교(M.Div.), 미국 국제신학대학교(Th.D.), (현)월송교회 담임
15	최사채	실천신학	개신원대학교(M.Div.), (현)영광염산제일교회 담임
16	김원식	교회 음악	전남대학교음악학과, 미국워싱턴대학교졸, (현)호신대학교강사
17	이길수	부흥 신학	감리교신학대학원졸업. 예수전도단(YWAM)DTS훈련강사, 새물결선교회부회장, 강사, (현)광주예향교회 담임
18	진장환	기독교 교육	개신원(M.Div.), 미 I.T.S 목회학 박사학위 과정, 서울경기신학교수

세련사회교육원
• 웃음 치료(월 5만원) • 텝스 영어(월 10만원)
• 영어 성경(월 5만원) • 워십 찬양리더자 교육(월 7만원)

학부 및 신대원(M.Div.)과정

1.국내신학교 중 최고의 시설, 최적의 교육환경
- 400명 수용 생활관, 체육관, 채플(예배당), 식당, 도서관, 교수연구실, 개인지도실 각종 연구소, 수영장, 산책로
2. 호남 최고 수준의 교수진 - 선교, 치유, 상담, 구약, 고대근동어 분야에서는 한국최고의 교수진
3. 최 단기 학위과정 완성 - 대학 학부는 2년 대학원은 1년에 졸업
4. 대 교단 총회인준신학교 - 졸업생 전원 100% 목사안수, 선교사파송(책임진로지도)
5. Venture Spirit
- 전문성과 은사 그리고 Venture Spirit 를 가진 전문가(교수, 목사, 선교사)로 하여금 국내 또는 해외 선교지역에 교회를 개척케 한 후 그곳에 GBC졸업생들을 심어준다.
6. 특수지역, 특수교회를 위한 맞춤형 신학교육
- 국내 도시 목회, 성목회 산골목회, 농어촌목회, 해외 선교별로 중국선교, 몽골선교, 중앙아시아 선교, 일본선교, 베트남선교, 캄보디아선교, 태국선교, 인도선교, 파키스탄선교, 중동선교.. 등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 복음 사역자들을 위한 맞춤형 특수교육과 훈련실시.
7. 국내에서 가장 저렴한 학비
- 전교생 100%에게 장학 혜택이 가게하고 학생 본인 부담은 최소화
8. 해외교회 인턴십 제도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필리핀 등 해외 교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해외 자매교회에 단기 인턴쉽을 보낸다. (단기해외 현장 학습 및 실습)
9. 해외 대학들과 자매관계를 맺고 매년 심포지엄 포럼, 선교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10. 복수 학위제 실시
- 모든 학위 과정의 절반은 국내 GBC에서, 나머지 절반은 해외 자매 학교에서 이수하고 학위는 양국에서 각각 준다. (한 과정 두개의 학위)

- 뜨거운 영성과 날카로운 지성의 조화 -
광주바이블칼리지
Gwangju Bible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평생교육의 1번지
세린사회교육원
후원 : Chemolee Lab, Corp.(U.S.A)
http://www.gjbc.kr
전남 담양군 무정면 성도리 산 72번지
문의전화 TEL. 061) 381-1365, 0000 FAX. 061) 381-1367